
2016 NAB SHOW 참관 관련 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
- ◆ 기 간 : 2016. 4. 17(일) ~ 4. 23(토), 5박 7일
 - ◆ 방문국가 : 미국 (라스베가스, 로스엔젤레스)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출장개요

□ 출장목적

- UHD, OTT 등 방송 분야 최신 동향 및 미국 재난방송 등 방송정책 파악을 통해 국내 기업 지원 및 정책 방향 등 대응전략 모색

〈 NAB 2016 개요 〉

- 개요 : '67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방송장비 박람회
- 주최 : 북미 방송사업자연합회(NAB,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 일정 및 장소: '16. 4. 18.(월)~21.(목),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 규모 : 세계 187개국 참가, 1,874기업체 참가, 관람객 103,012명('16년)
- 전시품목 : 방송통신 관련 장비·서비스·콘텐츠 등 전문 전시회

□ 출장개요

- 장소 : 미국 라스베이거스, 로스엔젤레스
- 출장자 : 지상파방송정책과 이종원 사무관, 김희정 주무관
방송시장조사과 민혜림 주무관
- 출장기간 : 2016. 4. 17(일) ~ 4. 23(토)

□ 주요일정

일시		일정	비고
4. 17.(일)	21:00 ~ 16:20	○ 이동(인천⇒라스베이거스)	KE0005 (11h20m)
	4. 18.(월)	○ NAB SHOW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4. 19.(화)	○ NAB SHOW 전시 및 컨퍼런스 참관	
4. 20.(수)	13:15 ~ 14:27	○ 이동(라스베이거스⇒LA)	AA1495 (1h12m)
	4. 21.(목)	○ 미국 현지 방송사 재난방송 시스템 및 방송현황 파악	
4. 22.(금)	12:40 ~ 17:50(+1)	○ 이동(LA⇒인천)	KE0018 (13h10m)

II. NAB SHOW 전시 개요

- 전시명 : 2016 NAB Show(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 전시일정 : 2016. 4. 18.(월) ~ 21.(목)
 - 컨퍼런스 일정 : 2016. 4. 16.(토) ~ 20.(수)
- 개최장소 :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LVCC)
- 주최 : 미 방송사업자연합회(NAB)
 - 미국의 8,300여개의 라디오, TV 방송국을 대표하는 단체로 1922년에 설립되어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으며 Gordon Smith가 CEO로 재직 중
- 전시규모('16년 기준)
 - 2만 7천평 규모의 전시면적으로 축구장의 약 40배 규모
 - 세계 187개국, 1,874 기업체, 총 103,012명 참가(해외 참가자 26,893명)
- 전시연혁
 - '67년부터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 전문 전시회로 전 세계 주요 방송사업자, 제조 및 솔루션 기업체 및 주요 바이어 등이 참가
- 전시품목
 - 방송 콘텐츠 흐름을 중심으로 제작·관리·홍보·배급·소비에 이르기 까지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다양한 분야의 장비 및 솔루션 전시
 - 디지털/UHD 방송장비 및 솔루션(제작, 송출, 수신, 오디오, 조명 등), 위성방송, 케이블, IPTV 등 방송장비 및 솔루션 전반

▶ 2016년 주요 화두, “4K, IP & 방송의 미래(OTT, VR 등)

- ATSC3.0, REC 2020, HDR 기반의 다양한 4K Workflow 및 관련 장비 출시
- 대부분의 방송장비(제작, 편집, 송수신 등)가 IP기반 방송장비로 전환 중
- 방송의 미래로 VR, 1인 방송, 드론 등이 방송장비 시장에 본격 진입

① ATSC 3.0 표준 대응

- ATSC3.0 방식에 NAB, 미 방송사, 방송장비 업체는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ATSC3.0 표준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시

- 시청자 환경 트렌드를 반영하여 TV 방송과 IP 기반 방송 플랫폼과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ATSC 3.0을 기반으로 타깃광고, 재난정보, 디지털 사이니즈, RF를 활용한 CDN, High-VHF 대역을 활용한 차량용 방송서비스, 4K UHD 방송 등

② 고품질 콘텐츠 경쟁(REC 2020, HDR 등)

- UHD 제작 플랫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도기업 간의 경쟁·협업 강화

- (제작장비) 제조사별로 카메라, 모니터, 레코더 등에 Rec2020, HDR 등의 기술규격을 다르게 적용·출시하여 장비 간 호환성 이슈 제기

※ Camera : Sony, Panasonic, ARRI, CANON, Blackmagic

Recorder : ATOMOS, AJA, Blackmagic(독자적 코덱 ProRes, DNxHD)

Switcher : Sony, GVC, BlackMagic

- (HDR) HDR 방송의 제작표준은 HDR 10, Dolby Vision 표준 간 경쟁인 상황이며 현재 어느 한쪽의 기술로 통일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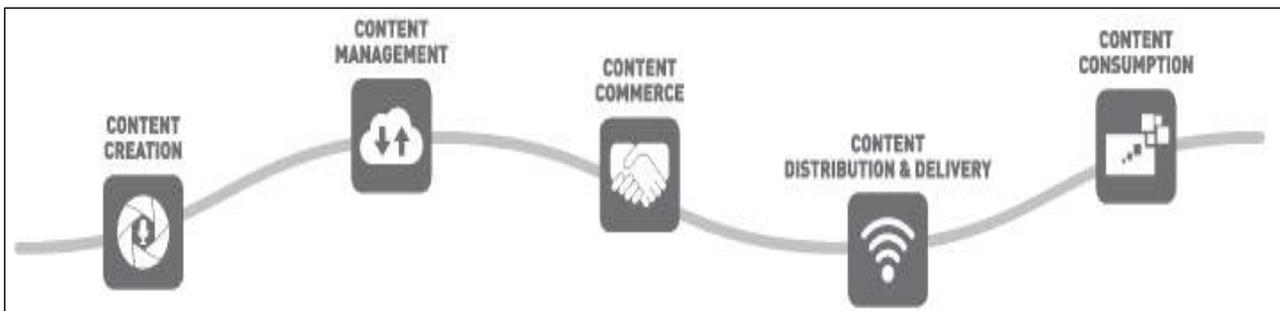
※ LG 수신기의 경우 현재 두 개의 HDR기술을 모두 지원하고 있음

③ IP기반 방송장비로의 전환

- 제작, 편집, 송수신 등 대부분의 방송장비의 IP 기반화 및 Distribution Workflow 제시로, 관련 기기·콘텐츠·서비스 시장 본격 성장 예고
- IP 기반 인터페이스 표준 선점을 위한 기술 경합 및 생태계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AIMS, 25G, 50G 등이 추가됨

④신개념 방송장비 등장(VR, 1인방송, 드론 등)

- 촬영, 제작, 편집, 생방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 및 라이브스트림 등 신개념 방송 제작 장비 등장
 - (FaceBook) DJI 팬텀 드론(무인기)을 이용한 라이브스트림 방송
 - (MEVO) 1개의 카메라가 자동으로 객체를 검색해 다양한 각도를 동시에 포착하고 사용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특정 각도를 선택하여 여러 개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처럼 방송
 - (Robocam)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원격으로 다수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 및 방송
 - (Omni) 액션캠 전문업체인 고프로는 카메라 6대로 360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VR 촬영기기인 옴니(Omni) 및 맞춤형 솔루션 공개



IV. NAB SHOW 주요 전시관 관람

1 KOREA-UHD 테마관(ATSC 3.0 전송 방식 시연)

- o (KBS) ATSC 3.0 표준의 2가지 기본적인 특징인 **재난방송**과 인터넷 정보를 이용한 **양방향 부가서비스**를 시연함
 - (재난방송) 방송 시청 도중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메시지가 TV 화면에 생성되며, 해당 화면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음
 -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재난방송 컨트롤센터에서 재난 메시지를 송출하여 바로 TV 화면에 메시지가 뜨도록 구현함
 - ※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전송받은 재난방송 메시지를 방송사에서 다시 편집하여 이를 비디오에 실어서 송출하는 방식임
 - 이 외에도, 재난상황 발생 시 꺼져있는 TV가 자동적으로 켜지는 **wake-up** 기능과 TV 시청 중 긴급한 재난 발생 시 **재난채널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이 있으나 아직 구현되지는 않은 상태임
 - (방송안내서비스, ESG)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결합하여 방송편성표상의 과거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도 하고, 현재 방송중인 프로그램의 시작점부터 다시 시청하는 것이 가능함



- (MBC) 삼성전자와 협력하여 기존 주파수 대역 내 하나의 RF 채널을 통해 UHD 방송과 HD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는 방식을 시연하였으며, 과거방송과 주요 장면의 클립 영상 등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구현
- (SBS)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채널 방송 및 POOQ 서비스를 연동한 방송안내 서비스 등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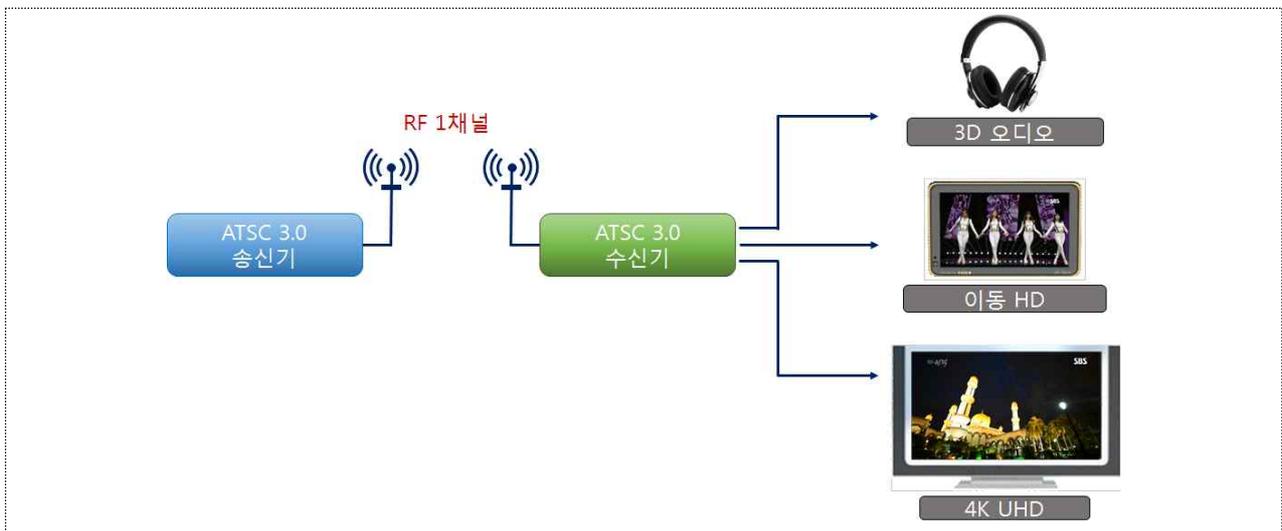
<K-UHD 테마관內 지상파3사 전시관>



- (ETRI) ATSC 3.0 송수신시스템(LTDM) 등 방송기술 관련 4식 전시
 - (LTDM* 방식) 지상파 1개 채널(6MHz 폭)로 4K UHD 한개 채널과 이동 수신이 가능한 HD 한 개 채널, 오디오 한 개 채널을 동시에 전송하는 ATSC 3.0 송수신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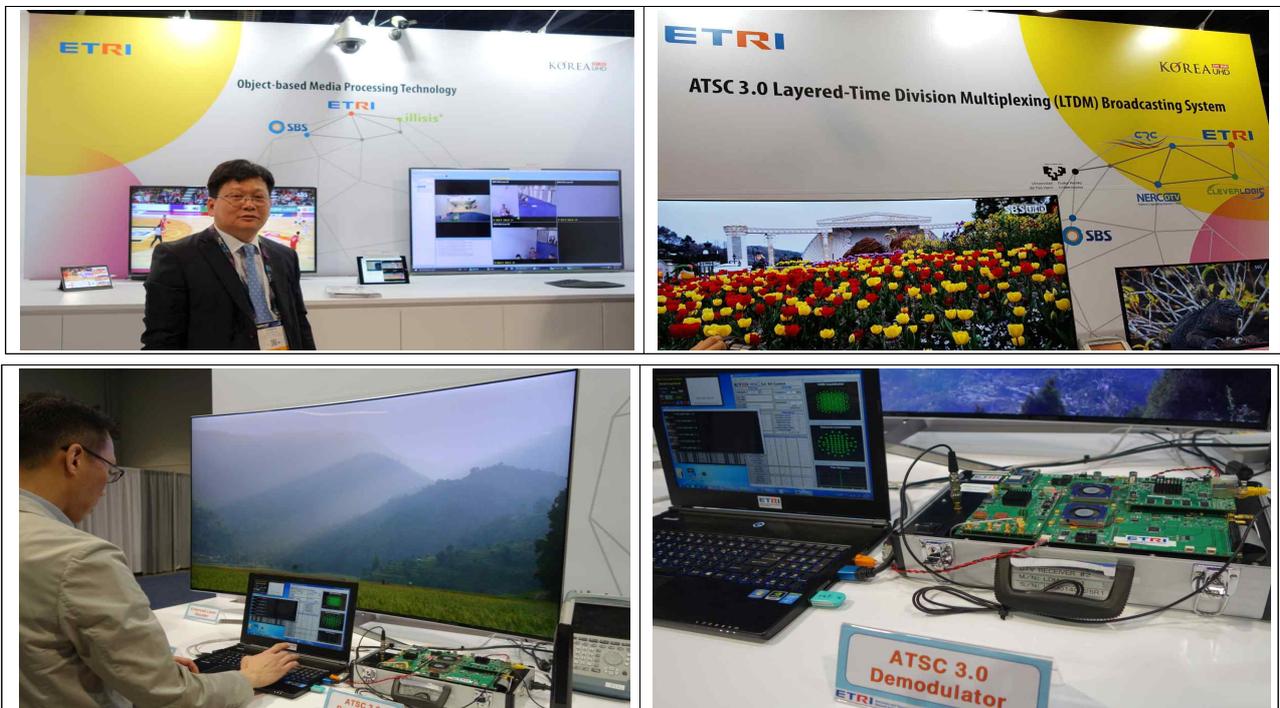
* LTDM(Layered-Time Division Multiplexing): 2개 이상의 방송신호를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른 계층으로 분할하여 전송하는 방식

<ATSC3.0 송수신 시스템(LTDM) 구성도>



-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ATSC 3.0이 IP기반이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방송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 (오브젝트 기반 미디어 처리기술) 별도의 트래킹 카메라를 사용하여 특정한 객체를 추적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술이며, 가상 시점에서 객체를 합성 및 실시간 추정 또한 가능함
- (고정/이동 3D TV) UHD 2D 방송과 UHD 3D 방송, 이동형 HD 방송이 동시에 서비스 가능한 하이브리드 방송서비스

< ETRI 전시관 >



<KOREA UHD 전시관>



② 글로벌 주요 업체 전시

- (소니) 프로 4K 캠코더에서부터 HDR의 4K 스튜디오 및 시네마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주에서 4K를 지원하는 카메라와 스포츠 중계용 4K 라이브 제작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선보임
 - (카메라) 새롭게 출시한 슬로우모션 카메라는 4K의 경우 8배속, HD의 경우 16배속의 슬로우모션 촬영이 가능하여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 시에는 필수적으로 고려됨
 - (HDR) 명함이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HDR(High Dynamic Rang) 기술을 4K 디스플레이에 적용하여 보다 실감형 화질을 구현
 - (4K IP전송) IP 네트워크 기반의 4K 라이브 프로덕션 시스템을 전시하였으며, 방송사에서 네트워크 IP를 통한 4K 제작이 구현되는 제품 라인업을 통해 4K 라이브 제작 요구에 대응할 예정임

< SONY 전시관 >



- (캐논) 세계 최대의 방송렌즈를 제작하는 회사이며, 디스플레이 및 소형 캠코더 등 방송장비를 다수 출시하고 있음
 - 2018년은 4K가 주류일 것이라는 예상 하에 4K 제품들을 주로 출품하고 있으나,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위해 일본에서 시험방송을 진행할 예정임에 따라 8K 방송장비도 개발 중에 있음

< 캐논 전시관 >



- (파나소닉) 방송용 전문 4K 카메라인 UX 시리즈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이외에도 방송용 모니터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
 - (방송용 모니터) 5.5인치부터 55인치까지 다양한 방송용 모니터를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단일화하여 전송할 수 있는 4K 모니터를 개발하여 전시함
 - (Precision 모니터) 사후 정교한 색보정이 요구되는 영화제작과 같은 분야에 사용되는 보정용 모니터 전시

< 파나소닉 전시관 >



- (GATESAIR) LG전자(수신부)와 합작하여 GatesAir(송신부)는 ATSC 3.0 풀 시스템 레이어를 구현 및 시연
 - 고효율의 UHF 송신기와 익사이터를 통해 하나의 6MHz 대역에서 HD 채널이 5개까지 사용 가능하며, ATSC 1.0과 ATSC 3.0 동시방송이 가능

< GATESAIR 전시관 >



- o (Harmonic) LG전자와 협력하여 HDR(High Dynamic Range) 기술을 개발하였고, NASA와 별도 계약을 맺어 우주 영상 콘텐츠를 HDR로 구현

< Harmonic 전시관 >



- o (grassvalley) 서버 등 제작 시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STRATUS MAM 시스템에서는 중계, 스튜디오, 송출, 인제스트 제작 모두를 할 수 있고, 일반 HD 제작과 동일한 운영의 4K UHD 시스템을 출시

< grassvalley 전시관 >



③ 한국관(KOREA UHD ON AIR) 주요 전시업체

- (Oticom) 방송용 영상 오디오 신호를 장거리로 주고받는 휴대용 광전송시스템인 PBTS를 전시하였으며, 이는 미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으로 수출되고 있음



- (VARAVON) 시속 200km의 레이싱 드론 및 와이어캠 등을 전시하였고, 카메라 안정화 장치인 짐벌은 미국, 중국과 함께 3대 짐벌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ORION) 55인치 OLED Full-HD 모니터와 터치 모니터 등을 전시
- (OIC Korea) 4K 시리즈모니터와 4K UHD 카메라 전시

< ORION, OIC KOREA 전시관 >



4 정책 제언 및 결론

- ATSC 3.0 기반 하의 방송과 인터넷 프로토콜(IP)망이 융합된 새로운 방송장비·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됨에 따라,
 -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은 단방향의 전통적인 방송이 양방향에 기반한 혁신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
- 국내 장비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지상파방송사와 제조업체간의 원활한 협력방안 모색 필요
- VR의 방송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차세대 기기 개발, 서비스 플랫폼 확보를 통한 방송산업 생태계 확대 필요

□ 총 참가기업 현황 개요

(단위 : 개)

공동관		개별참가기업	합계
KOREA UHD 테마관	KOTRA		
6	22	24	52

□ KOREA UHD 테마관(총 6개)

번호	사명	대표	주요 품목	위치
1	카이미디어	박상규	4K UHD 인코더, 디코더, ATSC 3.0 다중화시스템	SU15702
2	진명통신	김종일	UHD 송신기, 방송안테나	
3	에어코드	정연철	디지털방송 메터데이터 솔루션, 송출/관리 솔루션	
4	디에스브로드캐스트	정주홍	UHD 인코더, 디코더/트랜스코더	
5	디지캡	한승우	콘텐츠 보안 솔루션(CA/DRM), 방송 서비스 및 장비, 빅데이터 솔루션	
6	클레버로직	최영민	계측기, LTE기반 M2M용 모뎀 칩셋, 송수신 시스템	

□ KOREA UHD ON AIR 전시관(총 22개)

번호	사명	대표	주요 품목	위치
1	(주)넘버스	송주빈	클라우드 콘텐츠 전송 플랫폼	SU6808
2	(주)알라딘	최성호	방송용 LED 조명	C8618
3	엑스크립트	손광섭	방송 수신제한시스템, CAS	SU6805
4	(주)무버	김윤정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C8320
5	디지털존	심상원, 전정우	영상재생기, 분배기	C8620
6	(주)에이치디플러스텍	이종주	카메라보드 인터페이스	C8319
7	오리온	위샤오	방송 uhd 모니터	C8218
8	디에스브로드캐스트	정주홍	HEVC 인코더	SU6807
9	(주)옵티멀	김종욱	스위처, 컨버터 등	C8521
10	(주)픽스트리	신재섭	인코더	SU6905
11	(주)바라본	김종철	카메라 액세서리	C8621
12	(주)마크애니	최종욱	콘텐츠 보안	C8520
13	(주)오티콤	송태진	네트워크, 광전송	C8221
14	카이미디어	박상규	인코더	SU6907
15	(주)이에스엠연구소	정홍수	multi camera time slice video recorder editor 4D	C8321
16	(주)애니퓨처텍	정영석	RF, 전자파 측정 시스템	SU6906
17	(주)인텍디지털	김신	디지털위성, 셋톱박스	SU6806
18	(주)한국에빅스	신승창	DLP 프로젝터	C8318
19	디지털포캐스트	김형진	컨버터	C8522
20	주식회사 서울텍	신현명	카메라, 케이블, 프로덕션시스템	C8519
21	매크로영상기술(주)	박희복	영상신호 처리	C8518
22	오아씨 코리아	김일수	모니터	C8220

V. LA 현지 방송사 간담회 개최

□ 간담회 개요

- (목적) 미국 LA 현지 방송사를 방문하여 재난방송 시스템 및 방송 현황을 파악하고 재난방송 고도화 방안 논의
- 미국 한인방송사를 방문하여 방송현황 파악 및 해외한국어방송권 지원을 위한 방송권 우선순위 조사 등 지원 프로그램 협의

○ 주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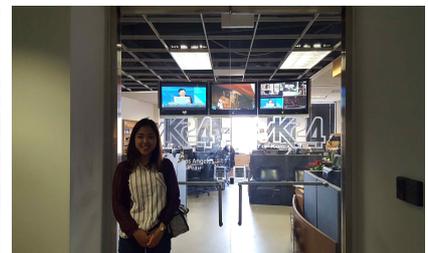
일 시 (현지시간)		일 정	비 고
4. 20.(수)	13:15 ~ 14:27	○ 이동(라스베이거스⇒LA)	AA1495 (1h12m)
	16:30 ~ 18:00	○ SBS International 방문 - 미주 방송 및 재난방송 현황 파악	3530 Wilshire Blvd. #1000, LA, CA 90071
4. 21.(목)	10:00 ~ 11:30	○ 라디오코리아 (미국한인방송) - 재난방송 현황 파악 - 한국어방송권 지원 논의 등	3700 Wilshire #600, LA, CA 90010
	14:00 ~ 15:30	○ TVK (미국한인방송) - 재난방송 현황 파악 - 한국어방송권 지원 논의 등	3435 Wilshire Blvd. #1000, LA, CA 90071
4. 22.(금)	12:40 ~ 17:50(+1)	○ 이동(LA⇒인천)	KE0018 (13h10m)



<SBS International>



<라디오코리아>



<TVK>

□ SBS International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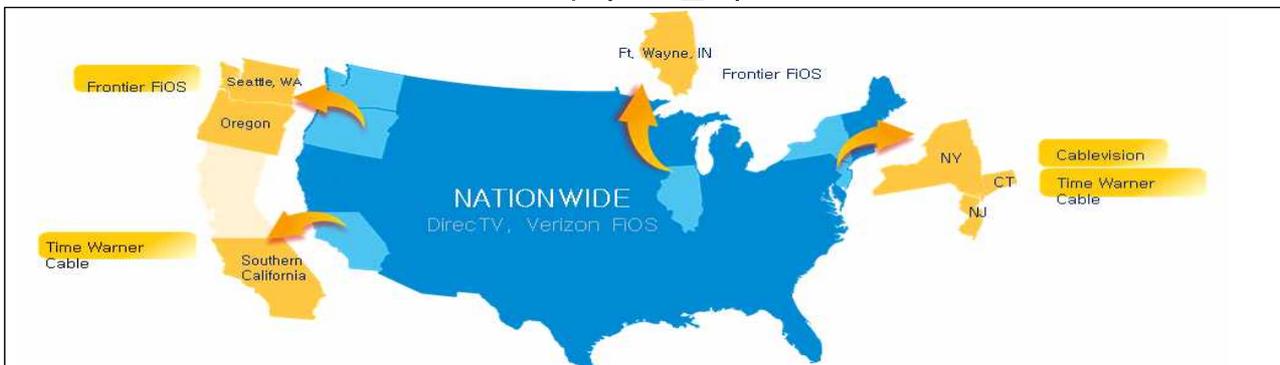
-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16:30 ~ 18:00
- 참석자 : 유환식 사장, 김문진 뉴미디어 팀장
- 주요 연혁

년도	내 용
'92년 3월	○ 설립, SBS 콘텐츠 미주 시장 유통과 미주 로컬 채널 운영 담당
'04년 10월	○ 24시간 방송 시작(Direct TV와 계약)
'06년 10월	○ SBS PLUS(드라마 채널) 런칭
'07년 말	○ IPTV 서비스 시작 (Verizon Fios)
'11년 3월	○ Time warner cable에 런칭

○ 주요 서비스 내용

- (공중파) LA 로컬 채널 일 3시간, 하와이 일 24시간 방송
 - ※ 미국 시청자의 90%가 MSO를 통해 채널 수신하여 공중파 영향력이 적음
- (케이블) 위성 Direct TV*를 통해 미 50개주 대상 방송 중임(SBS, SBS Plus 주요 프로그램 재편성)
 - * 미국 최대 위성방송사로 미 전역에 교민 대상 가장 큰 한국어방송 패키징 채널 공급중(MBN, TVN 등 한국 24시간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 (IPTV) 최대 통신사업자인 Verizon을 통해 Verizon Fios 방송
- (VOD) 온라인 VOD 서비스 업체인 VIKI, Netflix, Dramafever, Hulu, Ondemandkorea, Crunchyroll에 프로그램 공급

<서비스 권역>



○ 방송현황

- 현지 뉴스만 자체제작 하고 있으며, SBS의 뉴스, 드라마, 예능을 같은 비율로 방송하고 특별 수급한 스포츠 등의 콘텐츠는 상시 방송

○ 프로그램 판매 현황

- 미국 현지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판매된 적은 없으며, VOD형식으로 프로그램 공급되는 부분에서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

※ 남미 13개국 14개 방송사에서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SBS 프로그램이 방송중임 (스페인 Telemondo 공중파 방송사가 더빙함)

○ 재난방송 현황

- 미국은 FCC규제에 따라 모든 매체가 재난방송이 가능해야하며 월단위, 주단위로 재난방송 테스트*를 실시함

* 프로그램 오디오만 재난 방송 안내 음성으로 대체됨

- 재난 등급에 따라 경보, 자막, 영상 등 방송 상황이 달라지며 미국의 모든 허가받은 방송사는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고, 이에 따른 재난 방송 및 대피 안내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음
- FCC의 규제는 채널운영자에게 있으므로 채널운영자에게 채널 사용 시간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송사업자인 SBS International은 직접적인 재난방송 의무가 없으나 재난방송 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SBS International 방문 >

□ 라디오코리아 방문

-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10:00 ~ 11:30
- 참석자 : 이진호 이사, 김윤재 보도제작국장
- 주요 연혁

년도	내 용
'89년 2월	○ KAZN AM 1300개국
'92년 4월	○ 4.29 LA폭동 시 정규방송 중단하고 특별방송으로 한인사회 구심점 역할
'96년 3월	○ 해외한인 방송사상 첫 24시간 자체제작 방송시작
'05년 10월	○ 미 최대 위성채널 Direct TV에 한국어 패키지 런칭
'08년 4월	○ PNTV(IPTV社)와 업무제휴
'09년 11월	○ RKTV Direct TV에 National Geographic Korea 런칭
'14년 4월	○ LA다저스 한국어 공식 야구중계 방송사

○ 서비스 내용

- (라디오) 라디오코리아 AM 3대역(1230, 1540, 1650)에서 방송 중임
 ※ FM방송을 한 적도 있었으나 비용 등의 이유로 현재는 AM방송만 진행 중임
- (TV) RKTV 채널 TV송출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채널 (Direct TV)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코리아 프로그램 등을 방송중임
- (기타) 앱 스트리밍, 팟캐스트 서비스도 일부 제공 중임
- 서비스 권역 : 라디오의 경우 하와이(직영), 애틀랜타, 댈러스, 휴스턴에 콘텐츠 무료 제공 중임(24시간 방송)

○ 방송 현황

- 대부분 평지이며, 대중교통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 지형 및 교통의 특성상 라디오 청취율이 높음
- 한인방송의 청취율, 시청률은 전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으나 한인 라디오 대표방송으로 자리매김함

○ 방송권 제공 관련

- TV, 라디오 프로그램 모두 제작 및 수급이 어려워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방송권 제공 시 송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클린본이 아닌 재제작(영어자막)본을 선호함

○ 재난방송 현황

- FCC 규정에 따라 재난 긴급상황 발생 시 정규 방송은 중단되고 재난 방송이 실시되며, 한국 재난 발생시 YTN등의 채널을 받아 직접 방송
- ABC, NBC, CBS, FOX, 워너브라더스의 로컬방송사가 재난방송 주관사이며, 재난 발생 시 기타 방송사는 주관방송을 송출함
- 4.29 미국 폭동 발생 시, 미국 규정상으로는 재난 고지 안내 등급이었으나, 준내란 상태로 보고 24시간 상황실을 구축한 후 비상-복구-구호 체계에 따라 24시간 재난방송으로 재난 센터 역할을 함
 - ※ FEMA(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담당자가 방송사에 상주하여 협조함
- 라디오코리아는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스튜디오, 비상 모터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음
- AM은 무선수신, 광역성, 이동성 등의 강점으로 원거리 및 해외 방송이 가능하여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15.10.23일, FCC의장 Tom Wheeler는 AM 재활성화 계획 (Revitalization of the AM Radio Service) 채택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AM 라디오는 경쟁력, 다양성, 지역성의 보존을 위해 필요하며 지속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함에 동의함

- ※ AM 재활성화 계획에는 ① AM 신호 간섭 관련 규제 완화, AM 품질 향상을 위한 FM 변환기 사용 확장 ② 250마일 마다 FM 변환기(translator) 배치 1회 면제 ③ AM 전용 주파수 경매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AM 방송국의 소유권, 콘텐츠 다양성 등을 지원하여 AM 재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라디오 코리아 방문 >

□ **TVK 방문**

- 일 시 : 2016년 4월 21일(목) 14:00 ~ 15:30
- 참석자 : 에릭슨 대표, 조택수 제작국 팀장
- 주요 연혁

년도	내 용
'05년 3월	○ TVK 개국
'05년 10월	○ 법인 설립
'11년 초	○ K-POP 뮤직비디오 VOD 채널 런칭

○ 서비스 내용 및 방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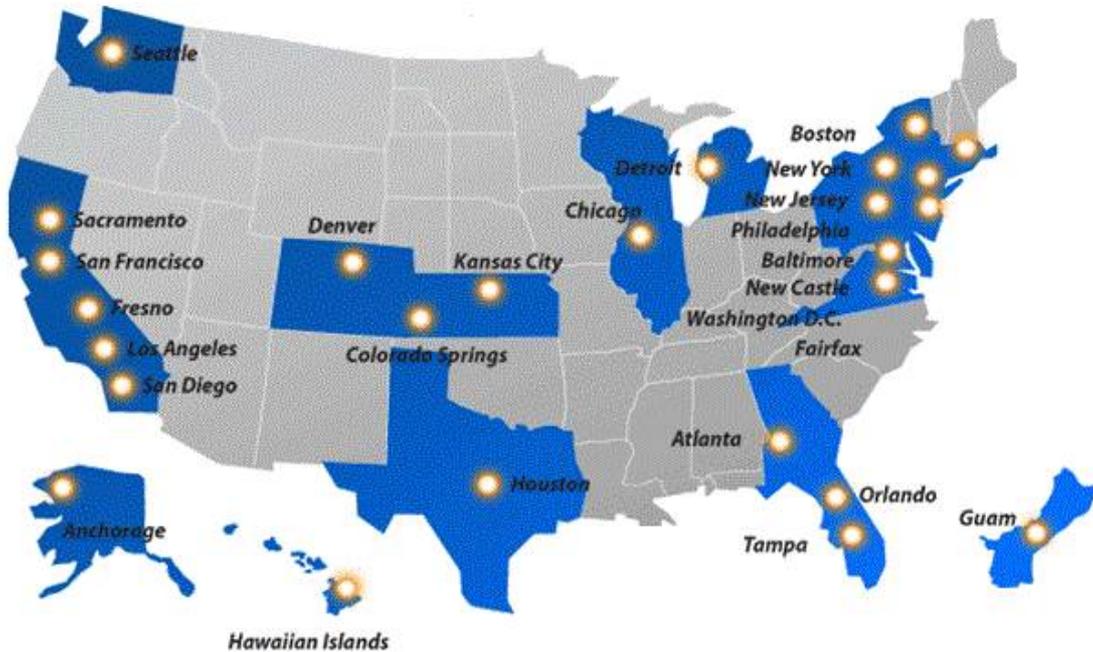
- 2개 채널(tvK1 tvK2)을 보유하고 있으며, SO사업자인 타임워너 케이블을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컴캐스트(comcast)*와의 제휴로 위성채널로도 방송중임

* 컴캐스트는 미국 최대 MSO이며, tvK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음

- 2개 채널에서 각각 채널A, 채널2에는 MBN을 주로 송출하고 있으며, 자체제작 뉴스와 함께 뉴욕, 워싱턴 지역 소식을 전달함
- OBS와의 제휴를 통해 글로벌 CEO 프로그램 편성, Food TV와 공동 제작 및 프로그램 편성 등 활발한 프로그램 제휴 진행중임
- 한국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음

○ 서비스 권역

- LA·워싱턴DC·뉴욕·샌프란시스코·샌디에이고·시애틀·필라델피아·올랜도·애틀랜타·알래스카·하와이 등에서 우리 동포와 미국인을 포함해 2000만 가구에 방송 중임



○ 방송권 제공 관련

- 한국 우수 콘텐츠 수급이 어려워 지역방송 우수 프로그램 방송권 제공 시 하반기 송출 희망 의사를 밝혔으며, 미국 전역에 방송되므로 클린본이 아닌 재제작(영어자막)본을 선호함

○ 프로그램 판매 현황

- K-POP 뮤직비디오 VOD 채널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재난방송 현황

- 재난 발생 시 NBC 유니버설 파트너 사의 재난 속보가 방송되고 정규 tvK는 방송이 중지되며 자막은 자체송출실에서 자동송출됨
- 미국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는 필수적으로 재난방송하며, 케이블 사업자는 SO의 의무를 받아 재난방송 하게 됨

- 케이블사업자는 SO에 정기적으로 ①어린이 프로그램 방송 시 광고 규제 현황 ②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소수민족은 제외) ③오디오 레벨(소리크기제한) ④재난방송 테스트 등의 결과를 보고함
- 미국 지역 내 유괴, 뺑소니 등의 사고 발생 시 거주민의 핸드폰에 경보음, 안내음과 함께 안내 내용이 게재됨
- 미국은 재난 발생 시 TV, 라디오, 핸드폰 등의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



< TVK 방문 >

□ 시사점

- 미국의 허가받은 모든 방송사는 재난방송 의무에 따라 정기적인 재난시험방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각 지역의 재난 및 재난 방송에 관심이 높아 적극적인 안내 및 유연한 대처가 가능함
- 우리나라 또한 방송 및 통신 등을 활용한 재난방송 의무화를 통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음
- 재난방송 시 TV와 더불어 AM라디오, 핸드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안내방송 할 수 있도록 방송사, 통신사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

□ 특이사항(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